

음악교육동향*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설계 전략 ‘따끈따끈, 음악 활동 미리 보기’ 교사 연수를 마치고...

한승모(한국음악교육학회 연수이사 / 인제남초등학교 교사)

2017년 1월 23일(월) 부터 25일(수)까지 교사 군포의 둔대초등학교에서 교사 연수가 있었다. 방학이면 전국 여러곳에서 교사들을 위한 여러 연수가 만들어진다. 이 연수들을 통해 교사들은 지난 1년간의 내 교실과 삶을 돌아보며 반성과 위로를 경험하고, 지난 1년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그중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들 중에 음악연수 숫자의 비중이 적지 않다. 합창, 리코더, 오케스트라, 오카리나 우쿨렐레, 아카펠라, 동요창작, 국악 연수까지 여러 실기 연수가 있고, 이런 실기 연수 외에도 각종 실기 활동을 가르치는 교수방법에 대한 연수도 있다. 각각의 연수들은 이끌고 돕는 기관 담당자들에 의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연수생들도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번에 학회에서 처음 만든 이 연수는 그동안의 교사대상 음악, 음악교육 연수와 무엇이 다른지, 또, 이 연수는 앞으로 한국음악교육학회와 음악교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본다.

첫째, 교육과정을 주제로 수업과 연결한 연수이다.

그동안 많은 연수들이 두가지 종류로 많이 활성화되었다. 그 한가지는 음악실기 연수이다. 음악교과의 특성상 실기 기능은 교사들에게 늘 숙제이다.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실기 연수를 찾게 되고, 꽤 많은 교사들의 수요가 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우쿨렐레, 오카리나, 아카펠라 실기 연수가 종종 개설되고 합창과 동요 창작 연수도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다른 한가지 갈래는 오르프 교수법, 코다이 교수법, 달크로즈 교수법과 같은 교수방법을 배우는 교사연수들이다. 교수법을 전공한 학자나 교사들이 강의를 하고 지도방법을 나누어 관련된 실습을 하는 형태로 일반 연수에 비하여 많이 비싼 수강료와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이번 이 연수는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활용에 중요한 몇가지 음악 활동을 해본 후 초등과 중등에 맞게 적용 사례와 방법을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살펴보는 연수였다. 이는 새로운 연수이면서도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과정을 대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학자와 교사가 함께 준비한 연수이다.

현재 많은 음악교육 활동가들이 있다. 예전에 비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는 운동가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연구 중심, 교사들은 실천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교사들에게는 연구의 경험과 그런 사례들의 발굴, 학자들에게는 학교 현장의 실천이 전해질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연수는 박사 이상의 공부를 한 교사들 여럿이 개론 강의 및 사례 일부 강의를 하였고, 교사의 경험이 있는 학자가 개론 강의를 함께 하거나 적극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학자들이 주요 활동 안내를 하였다. 이는 학자와 교사들의 강의의 일관된 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론을 바탕에 둔 현장감있고 실천적인 연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연수이었다.

셋째, 초등과 중등이 함께 한 연수이다. 초등과 중등의 학교 환경은 학생의 다름만큼 많이 다르다.

초등은 담임이 주로 전 교과를 가르치며 학급 운영의 차원으로 음악시간 외에도 음악교육을 환경적으로 접근하기에 좋다. 그래서 초등의 음악교육은 음악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등은 음악 교과만을 주로 수업하여, 한 학년에서는 각 학급에 동일한 수업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익숙한 수업은 많을 수 있으나 주당 1~4시간 만나는 시간에 대한 어려움과 학급 환경으로서의 음악교육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수는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가 8시간은 함께 배우고, 8시간은 교실을 나누어 배울 수 있게 연수를 운영하였다. 전체 시간에 배우는 사례와 질문들을 통해 초등과 중등의 수업을 위한 환경과 관점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또 각각의 시간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배울 수 있었다. 이 연수로 많은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과서를 잇는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또, 연구를 위주로하는 학자들과 적용을 위주로 하는 교사들이 서로 병행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를 바라고, 초등과 중등이 서로 좋은 점을 배워가는 연수이기를 바란다.

이런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연수를 주관한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는 앞으로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학회내에 단순히 교사가 많아지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교사들의

연구하는 문화를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각종 연구 대회나 현장연구들과 학회의 연구물과의 관계가 전무한 문제나, 요즘 많아지고 있는 각종 교육서적의 출판물, 원격연수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나 이끔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학회가 함께 할 경우 연구의 질 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사 연수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과 높은 연수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여러 음악교육 관련 교사 모임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국에는 많은 음악교육 교사 모임이 있다. 연주 위주로 하는 단체도 있고, 학위를 위해서나 자발적으로 학자들과 관계를 맺고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체도 있다. 또 각각의 교수법들을 주로 고민하는 단체도 있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까지 다합쳐 수십개가 넘을 것이다. 이런 각각의 교사 모임에 학회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연수가 기존의 학회 연수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가한 성공적인 연수였다 하더라도 행사를 알리고 이해하게 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보였다. 만약 잘 보완된다면 학회와 전국의 교사모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다.

셋째, 교사 연수 진행을 위한 확실한 연수 TFT팀을 구성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 여름 학술대회만큼 교사 연수는 중요하다. 학회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는 학회이길 바라고, 그런 공론의 장을 원하고 있다. 추후 학술대회가 자연스럽게 교사 연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나, 그런 중간 단계로써 교사들의 목소리나 많이 들어간 연수 진행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형태의 교사 연수나 특강을 더 늘려보거나 여름 학술대회를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연수나 나눔의 형태로 바꾸거나 제목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음악교육 단체중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회의 발걸음은 정말 중요하다. 회원 중심의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만 말하기에는 이미 그 역할이 매우 크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학회의 전현직 임원들이 느끼고 노력하는 음악교육에 대한 사명과 노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과 함께 손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 연수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연수의 방향성과 발걸음을 받기며 격려주시는 회장님과 총무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연수에 짧은 시간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나눠주신 연수 강사님들, 장소를 협조

한 둔대초 관계자 분들에게도 고맙다. 누구보다도 온 마음으로 함께한 연수팀 김 일영, 최은아, 김혜연, 이은지 선생님이 있었기에 이 연수는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마냥 편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즐겁게 열심히 참여해주신 연수생 선생님들에게 정말 고맙다. 음악교육의 미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의 미래를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고 싶다.